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12월 2일 (제97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성격차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 부딪치고, 갈등하고, 그래서 갈라서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들을 겪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는 성격차이에서 비롯된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90% 이상이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 성격이란 어찌 보면 개인의 특성, 성향, 기질이며, 그 사람의 개성이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활하려면 상대의 성격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싫어하고, 이럴 때 좋아한다.’라는 것을 파악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견원지간(犬猿之間)이란 말이 있다. 쉽게 말해 철전지 원수를 뜻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서로의 성격과약을 전혀 못했기 때문이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린다. 그런데 고양이는 이와는 정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기분이 나쁘거나 싸울 때 꼬리를 올린다. 그러니 개가 기분이 좋아 꼬리를 올리고 가다 고양이를 만나면 고양이 쪽에서는 싸우러 오는 것으로 여겨 뒹비니 싸우게 되는 것이다. 서로의 성향만 파악하면 서로 사이좋게 살 수 있었으면만 그러지 못하니 그들은 평생 원수로 살 수밖에 없다.

이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사유에 대해 ‘성격이 안 맞아서’라고 말한다. 남들은 ‘애들 봐서 그냥 살지.’ 하지만 그들이라고 왜 고민하지 않았겠는가. 몇 십 년을 따로 살던 사람이 한 지붕 아래서 살기란 쉽지 않다. 문제는 상대의 성격을 고치려는데 있다. 그러나 그건 혁명만큼이나 어렵다. 차라리 내가 상대의 성격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편이 쉽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모양새도, 성격도, 자질도 다 다르게 만드셨다. 그 사람들이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나의 모난 구석을 깎는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는 내 삶의 지렛대요, 넘지 못할 강 의 다리요, 먼 곳을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된다. 그러니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많은 노력을 하라.

발사대 없는 미사일은 무용지물이다

이번 잠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집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을 줄 믿는다. 우리는 이 집회를 위해 40일 작정기도와 전도에 전념하였다. 기도를 통해, 전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고 충전됨을 느꼈다. 목사님이 그토록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고 강조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영혼을 구하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고양시키는지 체험하였다. 우리는 이미 40일 작정기도를 통하여 전쟁의 승리를 담보 받고 있었던 셈이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기도로 내 영의 배터리를 강력하게 충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살아있기에 구원 받고, 살아있기에 상급 쌓고, 살아있기에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 대한민국도 분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화국면이라고 해도 경계태세를 누그러뜨릴 수 없는 이유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적들이 어느 때 우리를 공격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안보가 없이는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핵과 미사일로 위협한다 해도 그 가공할

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적 무기도 우리 육체가 병들어 죽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전9:4)고 하신 이유도 바로 살아있는 우리 육체가 영적 무기를 쏠 수 있는 발사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그러니 우리 육체가 곧 예수 이름이라는 무기를 쏠 수 있는 발사대요, 말하는 우리 입은 발사버튼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발사대인 우리 육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무기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



모두가 첫사랑을 되찾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자!

그리스도께 돌린다. 우리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그것이다(엡6:12). 영적 세계를 모르면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다반사이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 옛날, 아담을 선악과로 유혹했던 뱀, 곧 사단이요 마귀(계20:2)는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기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무기를 쏘아대는 발사대가 없다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총이 없는 총알이야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정 발사대든, 이동식 발사대든 그 발사대만 미리 제거할 수 있다면 제아무리 첨단무기를 개발했다고 큰소리 쳐봐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1:8). 권능이라 함은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각종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곧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각종 병을 고치며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신적 권

리 총알이 많아도 총구가 녹슬었다든지, 총의 방아쇠나 공이가 마모되어 총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한 마리의 적조차 대항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날마다 총기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건강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육체가 예수 이름이 발사되는 영적 발사대임을!”

이번 집회를 통해 회복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자. 우리 모두가 기도로 무장하고, 육체를 강건히 하여 주님나라에 가는 날까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이 되자.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딤후4:1~8)



준비된 자만이 영광을 맛본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히9:27).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유통기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량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 나이다”(시90:10)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 곧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전도자가 표현한대로 겉사람은 날로 늙아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으면 만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히9:27). 사람은 영존체이므로 1차 죽음인 육신을 벗어던지고 나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생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요5:29).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자들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天國)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나 계층이 있듯이, 천국에도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철저한 계급사회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체험한 분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천국에 가면 집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어마어마한 성에서 사는데, 어떤 이는 초라한 집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준비했느냐, 곧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매사 최선을 다해야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

근래에 제 친구 중에 이민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수명이 다하면 우리도 이민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취득한 천국 시민권을堂堂히 내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누군가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가면 개털모자나 쓰고 산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 온 것만으로 만족하며 아무것도 준비 없이 천국에 간 강도처럼 사시겠습니까?

요즘 이런 말들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저주라고요. 갈수록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늙어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는 마침표라도 있지요. 만일 영원히 사는 사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축할 때 이자가 한 푼이라도 많은 쪽으로 들지요? 주의 일 중에서도 이자가 높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 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왜 전도하는 일에 목숨까지 내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 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딤후4:7~8). 그날 하나님이 친히 씌워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바울은 전도에 매진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에게만 준 특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과 특권이 놓여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면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4:2~5).

왜 제가 본토와 아비와 처자를 뒤로 하고 재산을 무 자르듯 잘라가며 사람취급 못 받으면서도 복음전도에 힘쓰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서 왕권을 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 열 두 지파를 심판하고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눅22:30). 저는 제가 그 날에 받을 상이 무엇이며, 제가 앉을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뱃하러 멀미가 날 정도로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빈대에 물리며 못 먹고 못 자면서 세계를 누비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날에 받을 상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영혼구원이며,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를 통해, 아니면 똑똑하고 많이 배운 자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만, 미련하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상 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는데도 못 잡는 자는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1월 28, 29 양일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집회장소를 가득 채우느라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그 수고는 하나님이 치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치하하면 그 공력이 다 불타버릴 것이기에 저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다만 그곳에 참석한 자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더욱 노력해주십시오. 그 열매로 인해 하늘나라에 상이 쌓일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

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상을 위해 땀 것이니까요.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이듯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이를 기뻐하사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하기로 준비된 자다

자신이 가진 부귀와 명예와 지식마저도 다 배설물로 여겨 버렸던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3~14)고 말함으로 그 날에 받을 상에 연연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날에 받을 상에 관해서는 욕심을 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잘 살고 멋지게 사는 꿈을 꾼야 합니다. 꿈만 꿀 것이 아니라 이민 같 준비를 철저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도뿐 아니라 맡겨진 일,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고전4:2). 제가 직분을 줄 때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는 말씀을 아울러 줍니다. ‘자신을 위해 충성하라’는 겁니다. 주의 종 길을 가든, 안내위원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반주를 하든, 교사를 하든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더 큰 상으로 준비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교팀의 김성자 전도사에게 ‘이제 나이가 있으니 그만 따라다니라’고 했더니, ‘꿈에 보니까 한은택 목사님과 송초현 전도사의 상이 너무 많아서 자기도 그런 상을 받고 싶으니까 제발 그런 소릴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김 전도사처럼 그 날에 받을 상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더불어 드리고 싶은 말은 철저히 준비해서 결혼도 하고, 사업도 시작하세요. 취직 안 된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고, 자식들 물려줄 생각 말고 노후준비도 하세요. 준비한 자만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3:11).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진리는 단순하다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마24:24).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친히 알려 주셨습니다(마7:16~20).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가 있듯이 그들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장엄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여 권모술수와 꾀변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파괴하는 무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교회를 통째로 집어 삼키는 사기행각을 ‘모략’이라고 미화하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성경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아이디카드를 발급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며 어불성설입니다.

악한 마귀에게서 난 자는 진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본디 거짓말쟁이입니다(요8:44). 세상의 이방종교도 그렇지 않을진대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종교를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의 명패가 붙은 집만 찾아다니며 미혹하는 무리들은 분명히 불

법을 행하는 무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엡2:8).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하시려고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야 하고 성경지식을 쌓아서 받는 것이라면 선물이 아니고 상품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송이 기억납니다. “돈으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 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미혹되어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공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일자무식의 노인네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재산을 팔아서 거액의 현금을 드려야 한다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요19:30). 인간의 공로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간단명료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1).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성경예세이 ::

남의 꿈을 이뤄주면 내 꿈도 이뤄!

아들아!

언젠가 우리 신학교 교수가 내게 նշշ 절하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기로 내가 “뭐가 감사하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제 실력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더군요.

이 말이 맞다. 신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그 학생들만 실력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도 늘게 된 거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 남을 풍족하게 하면 그 사람만 풍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풍족해진다는 말씀이다. 즉 남을 이롭게 하면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아진다는 거야.

아들아!

남의 꿈을 이뤄주면 내 꿈도 이뤄진단다. 지금은 작고하신 네 믿음의 할머니가 내게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다. 남이 살아보겠다고 나를 밟을 때 그냥 밟혀주라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같이 밟지 말

라고. 나는 그 말씀을 늘 심비에 새기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다. 할머니 말씀대로 했더니 그 사람만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더욱 좋게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 사람의 꿈을 이뤄줬더니 나는 더 큰 꿈이 실현되는 것을 알게 된 거야.

남을 이롭게 하면 나에게도 이로운 거란다. 반대로 남을 해롭게 하면 나에게도 해로운 거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해하려고 했었지. 다윗이 이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는 등 힘들었지만, 결국 더 힘든 건 사울이었지 않니.

그러니 너는 부디 남이 잘 되는 방향으로, 남의 꿈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남이 풍성해지는 방향으로 살아라. 그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고, 네 꿈이 이뤄지는 길이며, 네가 풍성해지는 길이니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6:38)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다. 사랑, 용서를 상대방에게 주면 그것이 누르고 흔들어 내게 돌아오지만, 미움과 저주를 주면 그것도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된다. 그러니 네 행실이 어떠해야 할 지 잘 생각하렴.

朋友

나눔의 기쁨!

지난 11월 25일, 예수중심교회 서울 청년부에서는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였습니다. 이 날 1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여 8가구 1,600여 장의 연탄을 가정에 직접 배달하였는데, 특히 이번 행사는 청년들 모두 자비량으로 연탄성금을 모았고 배달까지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연탄 나눔을 하는 당일,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주일예배를 통해 하늘의 상을 언급하셨는데, 이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싶은 청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이날 그 누구보다 구제의 현장에 나가 앞장서서 일하였습니다. 전날 첫눈이 오고 비까지 와서 미끄러운데다가 마을의 지대가 높고 험해 연탄을 단체로 나눌 수 없던 이들은 각자 두 장에서 넉 장까지 품속에 고이 안고 산동네 꼭대기 집까지 오르내려야 했지만,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청년들의 얼굴에서는 환

한 미소만 가득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청년들을 웃음으로 맞이해주시고, 직접 물까지 따라서 청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잠19:17)이라고 잠언기자가 말한 것처럼, 총회장 목사님 이하 우리 교단 성도들은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구제를’이라는 구호 아래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구제를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153구제운동이 그것입니다. 내 교회, 내 지역, 내 교구, 내 친척, 내 지인 중에 어렵고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 섬기듯 섬겨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친절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직 2018년이 가려면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일을 합시다.

기자 송현혜 성도
charisma0691@hanmail.net



:: 소망의 언덕 ::

하나님 법 안에서

가을 운치를 누릴 마음의 여유도 갖지 못한 채 뭐가 그리 급한지 속력을 내서 도로를 달렸다. 그렇게 달린지 얼마 되지 않아 내비게이션에서 뻘~뻘 경고음과 함께 속력을 줄이라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제한속도 70km구간이었다. 단속카메라에 이르기 전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구간을 통과한 나는 다시 한번 속도를 높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이 났다. 자세히 화면을 들여다보니 ‘제한속도구간’이라는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일반 단속카메라가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만을 측정해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구간 단속카메라는 일정구간 전체의 평균속도를 가지고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었다.

단속지점을 통과한 뒤 속도를 높여서 목적지에 서둘러 도착하려던 나는 하마터면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낼 뻔한 것이다. 결국 나는 차 한 대 없이 뺑뺑이 도로의 유혹을 잘 이겨내고 제한속도에 맞게 긴 구간을 잘 통과하였다. 그런데 순간, 아차 하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멋지게 차렷이었지만 진정 멋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아... 혹시 내가 과속카메라 인생은 아니었나?”

‘인생이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속도,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하는데 마치 과속카메라 단속 피하듯 그때그때만 상황에 맞춰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니 밀려오는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즉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였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전도사라면서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체면치레하듯 신앙생활 한 것을 용서해주세요.” 분명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변질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이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워셨다. 그제야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게 허락한 인생이라는 구간 내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련다.

이현승 전도사
coollee0817@naver.com

가난에게서 배운 것들

제가 일곱 살 때 부모님께서 중병으로 입원하시면서 가세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한번 어려워진 형편은 몇 십 년이 지나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어머니께서 거의 외벌이로 일하면서 연년생인 자식 셋을 모두 대학에 보내셨는데요, 저희 집 형편을 생각하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만 붙잡으며 그 길고 험난한 길을 힘든 내색 없이 감내하셨고, 저희 앞에서 단 한 번도 한숨을 쉬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생활 속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스가 끊겨 추운 겨울에 찬물로 씻어야 했던 일이라든지, 교복 살 돈이 없어서 헌 교복을 물려받아야 했던 일, 버스비가 없어서 동전을 굶어모았던 일, 이런저런 독촉 용지들을 받아야 했던 일이라든지. 그런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듯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는 자라났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금요일이며 주일에배며 산상집회며 모두 다녔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저의 기도 제목은 장막과 물질의 축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습니

다. 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동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아주 천천히 이루어졌지요. 가난 속에 있었을 때는 가난이 저의 콤플렉스였습니다만 지금은 가난했던 시절이 제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었음을 압니다.

첫째로 가난은 제게 성실함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대학생 때 등록금을 낼 형편이 못돼서 무조건 장학금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8학기 동안 여섯 번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성실함은 습관이 되었고,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꼭 사장님들께 따로 보너스와 선물을 챙겨 받곤 했지요.

둘째로 가난은 제게 검소함을 길러주었습니다. 돈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못 가진 것에 대해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지요. 그 덕에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제가 살고 싶은 동네에 독립해서 살게 되었고, 작년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생 때 가지 못했던 어학연수를 저 자신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가난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옷을 사는 데는 돈을 아껴도 남에게 구제

하는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게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가난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에 감사.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음에 감사. 현금할 수 있음에 감사.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남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조차 제게는 다 감사거리입니다. 누구보다 감사할 게 많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순식간에 이뤄지는 기적,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도착한 가나안처럼 더디게 나타나는 기적. 이 느린 기적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괴로워하지요. 여기서 포기하면 광야는 우리의 종착지가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이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 걸어 나갈 때 언젠가 광야의 길이 그저 경유지였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가난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지금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은혜 성도**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인간은 누구에게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왔던 종교는 불교와 유교였습니다. 불교의 교리 윤회설은 죽은 뒤에 자신의 업보에 따라서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며 돌고 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거나 선

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내세보다 현세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다로가 죽은 뒤의 세상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뒤에 세상을 어찌 알겠느냐?” 어쩌면 진솔한 대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가보지 않은 세계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

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세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

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평강의 축복을

어떤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후 생기는 병을 ‘화병’이라고 말합니다. 화를 품거나 화를 내는 것이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예증해주는 말입니다. 어떤 부인이 호흡장애로 병원을 찾았는데 진찰해보니까 오래된 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분노가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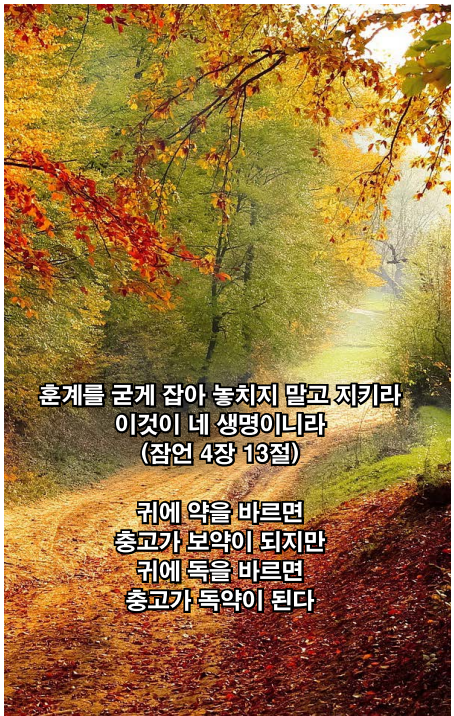
그런데 이와 비슷한 예로 방울뱀은 몹시 화가 나면 제 몸을 문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도 사실은 방울뱀처럼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화는 내 위주로 생각하며 내 방식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여야만 하는데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그 순간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 위주로 생각하는 마음을 바꾸면 분노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를 내서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화가 더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화를 내면 몸속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불안, 두통, 불면 등의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장수와 평강’은 우리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귀한 축복이므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사9:6)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요 14:27) 진정한 평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안이 더 월등하게 클 때 그 어떤 환경이나 핍박, 고통, 스트레스를 다 뛰어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찌어다”(살후 3:16).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他使我的靈魂甦醒
為自己的名引導我走義路

張志

他使我躺臥在青草地上
領我在可安歇的水邊

張志

耶和華是我的牧者
我必不致缺乏

詩篇第23篇
金政任